10.15686/fkl.2026..68.327

여성의 역사소설 쓰기 전략

-박완서의 『미망』 속 실패와 비스듬한 계승을 중심으로

박준훈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연구보조원

목차

1 잊히지 않는 것들, 또는 여성사 쓰기의 역설
2 저급한 것들의 계보—실패와 비스듬한 계승을 다시 읽기
3 실패에서 열리는 다른 삶의 가능성
4 비스듬한 계승, 체현된 앎과 일상에 가라앉은 힘들
5 여성역사소설 연구를 향하여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389)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박완서의 『미망(未忘)』을 여성의 역사소설 쓰기 전략의 사례로 재독한다. 조앤 스콧이 지적하였듯 여성을 '평등'한 역사의 일부로 가시화하면 보편으로 전제된 역사의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차이'를 지닌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면 여성사를 역사 일반의 부록처럼 제시하게 된다. 역사 서술이 이 역설을 제시해야 한다면, 여성의 역사소설 쓰기는 이를 허구적 글쓰기의 전략적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실패는 인물들이 스스로 세운 의도와 기획에 비추어 좌절한 사례들이다. 잭 핼버스탬을 경유하여 본 연구는 이 좌절을 결핍으로 읽는 대신, 좌절 이후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이어지는가를 묻는다. 전처만의 마음기운, 홍씨의 살림 능력, 재득의 흙기운에 대한 앎은 의도와 기획에 따라 곧게 전달되는 대신, 그 전달이 실패한 자리에서 한 세대를 비껴 우발적으로 되살아난다. 이 '비스듬한 계승'은 젠더와 계급, 죽은 자와 산 자, 망각과 기억을 가로지른다.

나아가 분단으로 닿을 수 없게 된 고향을 소설로 불러내는 박완서의 소설 쓰기 자체가 그러한 계승의 실천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여성역사소설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미망』의 의의를 제시한다.

국문핵심어: 박완서, 미망, 여성역사소설, 실패, 비스듬한 계승, 그림자 페미니즘

1 잊히지 않는 것들, 또는 여성사 쓰기의 역설

> 태임이가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건 일본 놈 인삼 도적을 추적하는 소년 종상이의 씩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1]

박완서의 『미망』은 태임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서사로, 소설의 마지막 문단은

1 박완서, 『미망』 3권, 민음사, 2024, 450쪽. 이하 동일한 판본의 출판물에서 직접 인용 시 권, 쪽만 표시.

태임의 죽음으로 끝맺는다. 숨을 거두는 순간 태임이 보고 있는 것은 젊은 시절의 종상이 일본인 삼 도채꾼을 뒤쫓아 잡아내던 장면이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종상이 머물던 강릉골의 삼을 도채하던 시기, 열다섯 살 태임은 전처만과 함께 동해랑에 거주하고 있었다.[2] 따라서 전처만의 슬하에 있던 태임이 강릉골 인근에서 한밤중에 벌어진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태임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본' 종상의 모습은, 실제로는 직접 목격한 적 없는 과거를 상상 속에서 빚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3]

이 글은 『미망』이 직접 목격한 적 없는 허상으로 끝맺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마지막 장면은 이 소설을 과거에 기반한 허구fiction에 관한 소설로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제목 또한 경험한 적 없지만 잊어선 안 될 과거와, 돌아갈 수 없지만 잊지 못하는 과거 사이에서 진동한다.[4] 후자에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과거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망각과 독특한 관계를 맺는 소설로서 『미망』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

2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은 『미망』 2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임이는 조금 아까 자기가 종상이를 신랑감으로 점찍은 건 열한 살 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여란이 역성을 들기 위한 과장이었고 정말 종상이한테 이성을 느끼고 사모한 건 열다섯 살 적이었다. 그때 종상이는 까닭 모를 미움을 사 강릉골에 있는 그의 소실집 머슴으로 쫓겨난 지 몇 년 되는 갓 스물의 청년이었다. (중략) 종상이는 조선 사람 복장을 했으되 발가락을 끈으로 꿴 나막신을 신고 있는 도적의 한 사람을 악착같이 쫓아가 그 나막신 한 짝을 얻을 수가 있었다." (『미망』 2권, 414쪽. 강조는 인용자.) 이 구절에서는 소설의 마지막 문단에서 태임이가 떠올린 '소년' 종상의 모습과 달리 종상을 '갓 스물의 청년'이라고 쓰고 있다.

3 이러한 인식은 "하나의 기억과 다른 기억 사이를 잇는 것은 상상력일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최재봉, 「작가 인터뷰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이경호·권명아 편,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34쪽. 김재건, 「근대사회로의 역사적 이행과 개성 가족사(史)-대하소설 『미망』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제29호, 춘원연구학회, 2024, 367쪽에서 재인용.

4 이러한 접근은 박완서의 작품들이 "경험과 기억에서의 사실적 재현과 재현 불가능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실의 복잡화"를 다룬다는 권명아의 지적과 맞닿아 있다. 권명아는 이를 "증언불가능성의 정동"이라고 정의한다. (권명아,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대안기념 정치 구상: 애도 주체와 현실의 증강, 그리고 '완서학'의 원천」,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96쪽.)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망』 본문의 마지막 문단은 태임이 경험한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망』이 망각과 맺는 이러한 관계는,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인 과거의 개성에 대한 작가의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분단과 함께 박완서에게 개성은 닿을 수 없는 땅이 되었고, 그가 개성을 직접 경험한 것은 유년 시절에 그친다. 「작가의 말」이 보여주듯 소설의 배경에 관한 지식 대부분은 전해 들은 이야기와 취재로 재구성된 것으로, 『미망』은 고향에 대한 직접 경험의 기록이 아니라 이미 닿을 수 없게 된 고향에 대한 간접적 회고의 산물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태임이 본 허상은, 작가가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시공간을 소설의 무대로 불러내는 쓰기 행위와 겹쳐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망』이 망각과 맺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읽어내고자 한다. 즉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거나 그 이면에 가려진 여성들의 일상과 실패를, 결핍의 표지가 아니라 역사적 진보와 가부장적 적통으로 표상되는 직선적 시간으로부터 이탈한 삶의 가능성으로 읽는 것이다. 기록에서 누락된 여성의 일상을 좌절의 결과로 한정하는 대신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가시화하는 대항적 소설 쓰기로 연관 짓는 이러한 독법은, 루카치가 『역사소설론』[5]에서 세계사적 개인 또는 역사적 사건의 주변인물에 주목한 것과 유사하지만 그 목표는 역사 속 여성의 가시화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탐구하는 것에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과거 여성의 일상을 '가시화'한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는다.[6] 본 연구의 관심은 오히려 가시화되지 못한 채 좌절된 소망들이

5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거름, 1987.

6 이 소설은 기록 바깥의 여성 일상을 가시화한 텍스트로서도 의의를 갖추고 있다. 예컨대 소련군이 개성에 주둔하자 부윤이 향응을 제공하려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기생들이 부민을 대신해 치욕을 겪는 장면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된다. 사건 진행 전체에서 보면 부차적인 이 대목이 굳이 제시되는 까닭은, 이어지는 서술이 밝히듯 직후 소련군 대신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 일이 역사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3권, 423-428쪽.) 이처럼 소설은 소실된 기록을 허구로 되살린다. 본론에서 후술하겠지만 상철과 결혼하여 정실부인이 된 여란이 "호적에 올랐기 때문에 더욱 요망한 첩"(3권, 301쪽)으로서 받는 비공식적인 대우들 또한 기록 밖의 여성에 대한 기록에 해당한다. 한편 『미망』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개성 출신 실존 인물 공진항에 대한 개성 사람들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소설 속 공진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사례로는 안숙원,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트랜스크리티시즘-〈미망〉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제140호, 국어국문학회, 2005, 485-486쪽 참고.

일상을 어떻게 정향(定向)시키는가에 있다. 이 질문은 여성을 역사에 기입하려는 시도가 부딪혀온 역설에 주목한 조앤 스콧의 논의에서 비롯된다. 조앤 스콧은 여성사 쓰기를 과제로 삼을 때 여성을 '평등'한 역사의 일부로 가시화하는 전략은 보편으로 전제된 역사의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여성을 '차이'를 지닌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는 전략은 여성사를 역사 일반의 부록처럼 제시하게 된다는 역설적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7] 여성사 쓰기가 마주한 역설과의 길항 관계 속에서 본 연구는 여성역사소설의 대표적 사례로서 박완서의 『미망』을 재독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여성역사소설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사 서술이 여성사 쓰기의 역설을 제시해야 한다면, 역사소설은 이 역설을 허구적 글쓰기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역사소설은 스스로 허구임을 전제하고 허구로서 유통·수용되는 만큼, 여성사 쓰기가 마주한 역설을 해소하는 대신 허구적 글쓰기의 동력으로 전위시킨다.[8]

이러한 시도는 김복순이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에서 앞서 진행한 바 있다. 김복순은 『토지』, 『혼불』, 『미망』을 여성역사소설의 대표적 사례로서 제시하며 이를 여성가족사소설과 구분한다. 김복순에 따르면, 여성역사소설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 속에 여성의 고유한 경험이라는 차이를 보편성의 범주로 편입하려는 시도이자, 역사와 문학 모두에 내재된 남성 보편성을 재구성하

---

7 조앤 W. 스콧, 정지영 외 역, 『젠더와 역사의 정치』, 후마니타스, 2023, 23-40쪽. 스콧이 역설을 지적하게 된 과정과,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응 및 대안에 관해서는 김정화, 「젠더사의 정치학: 딜레마와 가능성—조앤 스콧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제34집, 효원사학회, 2008, 1-36쪽을 참고.

8 조앤 스콧은 여성사 쓰기 시도가 마주한 역설을 해소하는 대신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여성사 쓰기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사 쓰기 자체가 아닌 여성역사소설에 주목하는 만큼, 이 역설을 전면에서 재인식하고 전위(轉位)시키는 대안적 시도로서 여성역사소설 쓰기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역설은 해소되거나, 단순히 전면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는다. 역사 서술 안에서 가시화와 범주화의 역설이 어느 쪽을 택해도 막히는 인식론적 교착으로 작동한다면, 스스로 허구임을 전제하는 소설 안에서 같은 역설은 서사를 직조하는 구성 원리로 전환된다. 역설은 사라지지 않은 채 다른 양태로 작동한다. 소설 또는 서사 형식 자체가 시간을 다루는 고유한 방식을 지닌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일반적 가능성이 아니라, 여성역사소설 쓰기가 여성사 쓰기의 역설을 서사의 구성 원리로 전위해가는 양상이다.

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라 김복순은 여성역사소설을 역사구성적 성찰 기능을 가진 범주로 이해하고, 그 기능과 여성역사소설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김복순은 이러한 시도를 여성적 차이를 기존의 리얼리티와 보편성 범주에 기입하려는 시도로서 정의하고 있다.[9] 본 연구는 여성역사소설을 시학적 범주로서 재설정하려는 김복순의 문제의식을 이어받되, 보편성의 확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스콧이 지적한 역설이 여성역사소설 안에서 서사를 직조하는 구성 원리로 전위(轉位)되는 지점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역사소설'이라는 범주를 확립된 장르가 아닌, 쓰기 전략의 측면에서 지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이를 하나의 장르로 지시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을 가늠하는 차원에서, 여성사 쓰기가 마주한 역설이 소설 쓰기의 자원으로 전위되는 전략을 검토하는 연구라 하겠다. 젠더를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하는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에서 '여성' 또한 생물학적·문화적 본질을 가리키지 않는다. 여기서 여성은 역사 속 가시화와 범주화의 역설 사이에서 길항하는 글쓰기의 위치를 지시한다. 이러한 위치에서 발생한 글쓰기의 전략은 여성이라는 본질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남성을 보편으로 전제한 역사 서술 안의 특정한 위치에서 진행된 대항적 소설 쓰기의 전략으로 나아간다. 그럼에도 '여성역사소설'이라 표기하는 이유는, 이 표기를 통해 개별 작품론으로 흩어져 논의되어 온 텍스트들을 하나의 역설에 대한 상이한 응답들로서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를 용어로서 범주화할 때 발생하는 효과와 위험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 이어 진행될 연구들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미망』에서 규명하려는 서사 원리는 '비스듬한 계승'이다. 이는 앞선 세대의 역량이나 앎이 의도와 기획에 따라 곧게 전달되는 대신, 그러한 전달이 실패한 자리에서 한 세대를 비껴 우발적으로 되살아나는 이어짐을 가리킨다. 그 핵심은 장악 불가능성에 있다. 비스듬한 계승은 누구의 의도로도 다스려지거나 예정되지 않으며, 바로 그 통달 불가능성 때문에 직선적 전달처럼 전유되

9 김복순,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3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41-280쪽. 이러한 특징들이 감정 영역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김복순의 주장은, 오늘날 정동 이론이 백인-남성-지식인 중심의 감정 담론과 거리를 두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

거나 끊기지도 않는다. 이때 표면적인 단절은 소멸의 표지가 아니라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조건이 된다. 이 개념은 앞서 살핀 여성사 쓰기의 역설과 연관되어 있다. 역사 서술이 여성을 평등의 이름으로 기입하든 차이의 이름으로 구별하든 남성을 보편으로 둔 틀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면, 소설은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채 그 틀 안에서 소유되지도 판별되지도 않는 역량이 이어지는 양상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문학이 남성중심적 역사 서술과 거리를 두고 이질적인 시간성과 기억의 방식을 제시한다는 논의는 여성문학 연구에서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점들을 여성역사소설이라는 범주의 층위에서 재론하고자 한다. 역사소설은 역사 서술과 직접 길항한다는 점에서, 여성사 쓰기가 마주한 가시화와 범주화의 역설이 가장 첨예하게 작동하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규명하려는 비스듬한 계승은 여성역사소설의 가능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럼에도 이 원리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것이 여성사 쓰기의 역설을 허구fiction적 글쓰기의 동력으로 삼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연에 의한 전달은 현대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서사적 장치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글에서 비스듬한 계승은 우연한 전달이라는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사 쓰기가 마주한 역설이 서사의 구성 원리로 전위될 때 그 역설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역사소설에서 계승 구도는 역사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누락하는가와 관계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 전달의 실패는 단순한 우연과 구별된다. 본 연구는 박완서의 『미망』을 그 원리가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주목하고, 여성역사소설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때 『미망』에서 규명되는 원리는 여성역사소설 일반의 원리가 아니라, 개별 텍스트마다 상이하게 작동할 원리들을 모색해 나가는 작업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재검토하고, 잭 핼버스탬의 실패와 저급이론을 바탕으로 이 글이 다루는 실패의 층위를 규정한다. 이어 3장에서는 머릿방 아씨·태남·여란·혜정·태임의 실패를 통해, 좌절된 소망이 한 인물에게서 그치지 않고 계보를 비껴 솟아오르는 양상에 주목한다. 4장에서는 이 소설이 쇄말적으로 묘사하는[10] 살림과 종상의 상혼·민중적 힘, 그리고 흙기운에 주목하여, 직선적 시간관에서 이탈해 발생한 힘들이 일상에 가라앉아 대

안적 삶을 창출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2 저급한 것들의 계보—실패와 비스듬한 계승을 다시 읽기

『미망』은 거상 전처만의 가계가 이성과 부성, 태임과 종상, 여란과 경우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는 전처만의 서자인 후성, 태임의 이부제(異父弟)인 태남, 여란과 상철이 정식 혼인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 전처만은 세 아들에게 각기 다른 자질을 물려주고자 하나 그 배치는 번번이 어긋나고, 손녀 태임에게조차 과거 자신의 가족들이 종상의 조부인 이생원에게 당한 수모를 털어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태임의 어머니 머릿방 아씨는 재득과의 사이에서 태남을 낳은 뒤 시어머니 홍씨의 계략으로 몸을 상하고 우물에 투신한다. 이후 태임은 서구식 교육에 대한 소망을 접고 종상과 혼인하고, 물려받은 재산을 활용해 삼촌들이 처분한 인삼 농업을 다시 이어간다. 태임과 혼인한 종상은 태남을 데려와 출생의 비밀을 전한다. 직후 태남은 만주로 건너가 종상이 공장을 운영해 얻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달하는 자리에 서고, 달래와 혼인해 경국을 얻는다. 경성에서 학교에 다니던 태임의 딸 여란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승재의 집에 머물며 규서의 위협에 노출된다. 이후 여란은 규서와 이혼한 혜정과 함께 만주로 향하지만 정착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건너가고, 개성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동향 출신 상철과 연애를 하지만 그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혜정은 만주에 남아 태남의 집안을 돌보다 달래가 죽은 뒤 태남과 혼인한다. 종상의 라이벌이었던 승재는 밀정 마도섭을 시켜 만주에서 종상과

10 권영빈은 박완서 문학에 대한 비평이 "특유의 일상성과 쇄말적 묘사로 대변되는 여성적 필치로 인해 그의 집·가정을 역사나 공적담론이 사사화(私事化)되는 장소로 위치 지우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공간의 건축술: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開城)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62쪽.) "박완서의 문학이 오랜 동안 이른바 본격문학과는 구별되는(혹은 미달되는) '개인적 체험의 기록'이나 '증언과 기록의 소명'을 담은 텍스트로 간주되었다"는 권명아의 지적 또한 이러한 평가와 맞닿아 있다.(권명아, 「전쟁 상태적 신체와 슬픔의 공동체: 냉전 체제의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담론과 정념 공동체의 위상」, 『석당논총』 제56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 14쪽.)

태남을 체포하지만, 종상이 체포된 뒤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 애쓰는 태임과 종상의 아들 경우를 보며 그 일이 일생일대의 헛수고였음을 깨닫는다. 해방과 분단, 전쟁을 거치며 강화도에 정착한 경우와 경국은 개성으로 밀항해 태남의 묘삼을 훔쳐 달아나고, 그 소식을 들으며 태임이 눈을 감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미망』을 여성역사소설의 사례로 읽기에 앞서, 이 소설이 어떤 형식 위에 놓여 있는지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루카치는 『역사소설론』에서 역사를 우연의 연쇄가 아니라 필연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역사소설의 성취를 역사적 사건의 주변에 놓인 인물들을 통해 한 시대의 총체성을 재현하는 데서 찾았다. 주의할 점은 루카치가 "부르조아 역사 서술은 지배계급의 학문"이라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대안적 실천으로서 역사소설에 주목했다는 점이다.[11] 본 연구는 해석의 준거를 시대의 총체성이나 필연적 과정으로서 역사의 예술적 재현에 두는 대신, 역사 서술의 대항적 매체로서 역사소설에 주목한 이 관심을 이어받고자 한다. 본 연구가 『미망』에서 주목하는 것은 필연으로 수렴되는 역사가 아니라, 의도된 전달이 번번이 어긋나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어지는 역량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목이 선행연구들과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이 소설의 제목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자의 뜻풀이대로라면 『미망(未忘)』은 잊히지 않음을 뜻한다. 또 다른 제목 『꿈엔들 잊힐리야』를 함께 고려하면, 선행연구는 크게 세 경향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개성이라는 장소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이들은 개성의 로컬리티를 탐색하며 고도(古都)이자 상도(商都)로서 개

11 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428쪽. 다만 김재건은 "루카치에게 있어 역사소설은 실제 발생한 역사의 흐름과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파악하고, 이와 구분하여 『미망』이 대하소설로서 "역사적 사실의 충실한 재현보다 그 가족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김재건, 앞의 논문, 372-373쪽.) 본 연구는 가족의 중심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충실한 재현 너머에서 역사소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역사소설을 통해 역사를 필연적 과정의 산물로서 재범주화하고자 했던 루카치의 역사소설론, 그리고 그에 따라 남성을 보편으로 전제한 역사소설들과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선 김복순, 2006, 앞의 논문을 참고. 한편 조영일은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을 해석하며, 여타의 역사소설론이 부족한 실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조영일,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근대문학 속의 역사소설」, 『문화/과학』 제63호, 문화과학사, 2010, 205-221쪽을 참고.

성의 위상을 읽어내는데, 개성의 특산물로서 인삼에 대한 주목 또한 여기에 속한다.[12] 이는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 고향'에 관한 소설로 『미망』을 파악한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13] 둘째는 근대 및 근대적 제도로서의 자본주의 비판에 초점을 둔 경향이다. 이들은 개성 특유의 '상혼'과 '돈의 도리'에 주목하여 전근대 거상들이 자본을 불리는 방식을 살핀다. 이러한 해석은 박완서 소설에 관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자본주의 비판 및 중산층의 자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14] 이상의 두 경향을 제목과 연관 지어 본다면 각각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 고향, 개성', '꿈에서도 잊어선 안 될 그 시절의 상혼, 즉 돈의 도리'에 관한 독해로 구분할 수 있다.[15]

세 번째 경향은 이 소설이 다루는 '잊어선 안 될', '잊히지 않는' 것으로서 여성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이 소설을 여성가족사 소설로 파악하거나, 여성과의 연관성 또는 여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여기에 속한다. 안숙원은 이 소설이 인삼의 상징성과 상품성을 각각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신체적 특징, 태임이 계승하는 가업의 매개로 해석하며 이 소설을 여성가족사소설로서 조명하였다. 이로부터 안숙원은 이 소설이 개성의 로컬리티를 과도기적 여성으로서 태임과 연결 지어 문학적 시공간으로서 '섬'의 크로노토프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6] 안숙원이 제시한 '섬'의 크로노토프가 외부와의 단절에 초점을

12 옥순종, 「박완서의 소설 「미망(未忘)」에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 『인삼문화』 제4권 제1호, 고려인삼학회, 2022, 38-58쪽; 김버들·조정식, 「소설 『미망』 속 개성 한옥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22, 41-52쪽.

13 김영미, 「박완서 문학과 '개성(開城)'의 로컬리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7집, 한국현대문학회, 2022, 359-393쪽.

14 개성의 로컬리티와 근대 제도를 연결 지은 연구로는 김재건, 앞의 논문을 참고.

15 개성의 특수성과 상혼을 연결 짓는 연구로는 손가인, 「'싸늘한 방관자', 개성(開城) 사람으로 서울에서 문학 하기-박완서 대하소설 『미망(未忘)』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75집, 한국현대문학회, 2025, 355-383쪽. 이외에도 유인혁은 『미망』에서 경성이 여성 해방의 공간으로 제시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유인혁, 「박완서의 경성: 『미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나타난 탈식민적 해방성」, 『한국문학연구』 제7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5, 347-376쪽).

16 안숙원,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서사시학 (2)-미망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337-370쪽.

맞춘 해석이라면, 권영빈은 젠더지리학을 분석에 도입하여, '경계' 지대로서의 개성과 그 경계를 넘나드는 자본에 초점을 맞춘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영빈은 『미망』 속 공간들이 젠더질서의 근대적 변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7]

상술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재검토한다. 첫째, 이 소설은 태임을 중심으로 한 모계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 계승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거듭 어긋난다는 점에서 가문소설의 관습을 그 내부에서 시험한다.[18] 이러한 접근은 여성역사소설이 여성 작가의 역사소설이나 여성을 소재로 삼은 역사소설이라는 작가·소재 중심의 규정, 또는 여성 인물이 주도하는 가문 재건의 서사라는 규정과 구별된다. 그러한 규정들이 역사소설의 창작 주체나 재현 대상에 초점을 둔다면, 본 연구는 남성중심적 역사 서술의 직선적 시간성과 길항하는 서술적 실천이라는 특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역사소설 전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미망』을 사례로 여성역사소설의 한 특성을 설명해보려는 접근이다. 지속적 역사로 손쉽게 간주되는 부계와 달리, 이 소설은 반복적으로 '미끄러지는' 모계의 서사를 재현하기 때문이다.[19] 권영빈이 『미망』의 공간 분

17 권영빈, 앞의 논문, 259-299쪽.

18 대표적으로 김경수는 이 소설이 여성인물이 주도하는 "집의 회복 또는 가문(家門) 재건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경수, 「한국 여성역사소설의 구조와 상상력-『토지』와 『미망』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 142쪽을 참고. 그러나 본 연구는 『미망』의 모계 계승이 '회복'이나 '재건'으로 완성되기보다 세대마다 어긋나고 단절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문의 재건을 전제하는 이러한 독해와 거리를 둔다.

19 모계 서사라는 용어는 선행연구에서 여성 인물들을 통해 이어지는 서사를 폭넓게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를 부계 서사와의 시간관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한다. 적통과 계보의 연속을 통해 가문의 지속을 서술하는 부계 서사에서 계승은 제도적으로 보증되며, 따라서 단절은 위기로 나타나고 그 회복이 서사의 목표가 된다. 반면 여성을 통해 이어지는 계승은 호적을 비롯한 기록에 기입되지 않는 만큼 연속성이 보증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적 서사와 남성적 서사라는 본질적 구분이 아니라,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기록되지 않는가라는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미망』이 모계 서사를 취하면서도 그 계승을 회복이나 재건으로 완성하지 않는다는 점, 곧 세대마다 어긋나는 양상 자체가 직선적 시간관과 길항한다는 점이다.

석을 마무리하며 “태임의 후대(後代)가 엮어가는 서사”[20]를 후속 과제로 남겨둔 것 또한, 모계 계승에 관한 본 연구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오세은이 『미망』의 혼사의례와 제사의례가 연속적이지 않고 “파행적이고 혼합적”[21]이라고 지적한 해석을 이어받아, 『미망』의 계승 구도를 서사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계승 구도를 서사 전반으로 확장해 보는 이러한 접근은 부계 가문 소설과의 차이일 뿐 아니라, 연속성에 집중해 온 기존 독해와도 거리를 두는 지점이다. 셋째, 박완서에게 개성은 유년의 짧은 경험에 머문 장소이며, 그 외의 앎은 전해 들은 이야기와 취재로 재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미망』이 펼쳐지는 시공간은 ‘순수한’ 개성의 로컬리티나 경험된 과거의 산물이라기보다 유실된 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즉 『미망』은 부재하는 시공간을 소설로 재창조해낸 결과물로서 이는 박완서 문학 특유의 시간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망』이 역사소설 또는 가문소설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직선적 시간성과 구별된 것으로서 분석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미망』을 “모더니티의 역설적 시간성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22]라고 평가한 허정인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허정인이 근대 자본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이 소설이 기억하고 전승하는 실패들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 소설을 미시사나 가문의 역사에 관한 소설로 읽는 대신, 생물학적·직선적 역사로부터 누락되거나 망각된 ‘실패’를 재의미화하는 소설로서 주목한다. 『미망』에서 실패는 한 인물에게서 닫히지 않고 그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며, 계보를 비껴 다음 세대로 솟아오른다. 이러한 계승의 과정에서 생물학적 재생산이나 직선적 역사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우연의 부산물로 드러난다. 이때 실패는 결핍이나 좌절에 그치지 않고 대안적 삶을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미망』을 사례로, 일상을 현재에 이르게 한 원인이자 동시에 일상에 잠재한 역량으로서 실패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직선적 계승을

20 권영빈, 앞의 논문, 294쪽.

21 오세은, 「여성 가족사 소설의 ‘의례와 연대성’-〈토지〉, 〈미망〉, 〈혼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276쪽.

22 허정인,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근대 재고의 한 형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권 제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319쪽.

이탈하는 다른 시간성과 대안적 삶을 산출하는 양상이 여성역사소설 쓰기가 갖는 가능성으로 규명된다.

실패를 결핍이 아닌 다른 시간성의 동력으로서 읽어내기 위해, 본 연구는 실패의 가능성을 사유해 온 퀴어 페미니즘 이론을 방법론으로서 참고하고자 한다. 잭 핼버스탬은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에서 성공과 실패의 위계를 해체하고, 실패·망각·퇴행과 같은 부정적 정동을 직선적·세대적 시간을 비판하는 자원으로 전유한다. 그는 '저급이론(low theory)'을 제안하며,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문화를 토대로 실패·망각과 직선적 시간관의 관계를 논한다.[23] 그가 주목하는 실패의 범위는 진보적 시간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상적' 인간 발달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공' 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른다. 이를 통해 핼버스탬은 실패와 그에 따르는 퇴행·상실·망각이 대안적 삶, 나아가 정치적 구성체를 생산할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재정립한다. 이러한 핼버스탬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망』의 일상을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삶과 시간성을 낳는 동력으로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다수의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보편으로서 남성문학 또는 문학 일반과의 위계에서 하위에 놓이는 기표로서 '여성문학'이 작동해 왔음을 지적해 왔다.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 역시 오랫동안 대중성의 지표 아래 놓여 왔다.[24] 핼버스탬은 바로 그 '저급한' 대상들이 실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확인해 왔음을 지적한다.[25] 기존의 학문적 위계를 거부하는 이러한 이론적 모

23 잭 핼버스탬, 허원 역, 「서문-저급 이론」,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 현실문화, 2024, 15-62쪽.

24 권영빈은 "천의무봉의 묘사"라는 김윤식의 평가가 "박완서의 작품을 '대중성'의 지표 아래 한계 짓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문학사상』 제17권 제1호, 문학사상사, 1988, 권영빈, 앞의 논문, 262쪽에서 재인용.) 허정인은 이 소설이 '저주받은 걸작'이라 일컬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더니스트로서의 박완서가 근대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리얼리즘 소설"로서 역사와 연결된 내용과도 연관 짓고 있다.(허정인, 앞의 논문, 318쪽.) 한편 역사소설은 신문연재를 통해 지면을 확보하기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 대중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에 관해선 김병길, 『역사소설, 자미(滋味)에 빠지다』, 삼인, 2011을 참고.

25 이러한 맥락에서 '저급'으로 치부되어 온 민중사·일상사에 대한 아날학파의 관심을 바탕

델은, 이미 대중적인 것으로 치부된 여성소설을 그 대중성에 기반해 역사소설 쓰기의 자원으로 다시 의미화하려는 본 연구의 관점과 공명한다.

또한 핼버스탬은 '통달에 저항하기', '나이브함과 우매함에 특권을 부여하기'와 함께 '기념화 작업을 의심할 것'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다. 그는 망각이 영웅적인 것이나 거대한 기억의 논리가 아니라 유령성과 잃어버린 계보에 더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된 역사가 아니라 지워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제안한다. 이때 망각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매끄럽게 전해지며 그 전승을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 작동을 방해하는 도구가 된다. 곧 망각은 사상과 혈통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세대 간 전승 양식 자체를 교란한다.

주의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록 행위조차 망각과 누락을 함께 생산한다는 점이다. 핼버스탬이 홀로코스트 기록 작업의 역설에 관해 지적하고 있듯이, 기념화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망각을 수반한다. 이때, 기념화에 의한 필연적 망각에 주목하는 일은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역사수정주의와 궤를 달리한다. 오히려 『미망』은 역사소설로서 유실된 기록들을 소설로서 재형상화함으로써 기념화에 의한 망각에 저항한다.[26]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핼버스탬은 일상적 층위의 실패들에서 대안적 삶의

으로, 여성의 역사 인식과 소설 쓰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김복순의 주장은 본 연구의 관점과도 상통한다.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 인식과 '기억의 정치학'-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32-68쪽을 참고.

26 박완서 문학이 갖는 특성에 관한 이선미의 논의는 핼버스탬의 이론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이선미는 1970년대부터 진행된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의 역사를 검토하며, 박완서의 문학들이 한국사회 근대성의 기원이자 원체험으로서 전쟁체험을 재역사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로부터 이선미는 박완서 문학이 "공식적 기억 외의 기억을 망각해야 하는 억압"과 대립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억, 즉 역사 대신 망각에 주목한 문학이라고 판단한다. 나아가 이선미는 "'추억'이나 '향수'가 아닌, 현재적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한 '기억'"을 박완서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결론짓는다.(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48쪽; 51쪽.) 이선미가 『미망』을 이러한 경향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미망』을 박완서의 다른 소설들보다 본격적으로 "현재적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는 소설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가능성을 읽어낸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실패의 사례들은 역사적·담론적 층위의 실패가 아니라 텍스트 내부에 나타난 실패, 곧 인물들이 스스로 세운 의도와 기획에 비추어 실패한 사례들이다. 대표적으로 전처만이 아들마다 자질을 가려 물려주려던 구상, 서구식 학교에 다니고자 한 태임의 소망, 종상을 체포하려던 승재의 평생에 걸친 기획은 모두 그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에 해당한다. 이때 인물들은 규범을 거스르기 위해 실패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좌절은 대안을 목표로 한 불화나 의도된 실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텍스트 속 다양한 실패들은 어떻게 의미화되는가. 이미 핼버스탬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무엇이 실패인지가 아니라 일상적 실패들을 결핍이나 무능의 표지로 회수해 온 평가의 틀에 있다. 성공과 실패의 위계가 이미 직선적·규범적 시간관 위에서 성립하는 것인 한, 그 척도에 미달했다는 판정은 미달한 삶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이 실패에 주목하는 것은 인물들의 좌절을 저항으로 격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좌절 이후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이어지는가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미망』의 서사는 인물들의 좌절을 다른 삶의 조건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미망』에서 실패가 결핍의 표지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여는 원인으로 읽히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미망』에 나타나는 실패들의 이어짐을 '비스듬한 계승'으로서 주목하고자 한다.[27]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직선적 전달이 의도와 기획으로 통제되는 매끄러운 전달의 형태라면, 비스듬한 계승은 그러한 통제가 실패한 자리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유전이나 교육에 의해 예정대로 재생산되는 대신, 한 세대를 건너뛰거나 엉뚱한 인물을 통해, 또는 어떤 우연한 마주침을 통해서도 활성화된다.

---

27 이 '비스듬한'이라는 표현은 핼버스탬이 캐스린 본드 스톡턴Kathryn Bond Stockton에게서 빌려 온 '옆으로 자라기growing sideways', 즉 위로·앞으로 향하는 직선적 발달을 거부하는 퀴어적 시간성에 빚지고 있다. 허원은 이를 "이상한 머뭇거림, 가시밭길, 생산성 없는 지연 등을 포함하는 변칙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핼버스탬의 '옆으로'가 세대적 전달의 거부에 무게를 둔다면, 본 연구의 '비스듬한 계승'은 그 거부를 발판으로 단절된 자리에서 발생하는 변칙적인 전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옆으로 자라기'에 관해선, 잭 핼버스탬, 앞의 책, 63쪽을 참고. 허원의 설명은 같은 쪽, 옮긴이 주를 참고.

3 실패에서 열리는 다른 삶의 가능성

『미망』을 실패의 서사로 읽는 일은 특정 인물의 불운을 부각하는 일이 아니다. 이 소설에서 실패는 세대와 계급, 가해와 피해의 구도를 가로질러 거의 모든 인물에게 배분되어 있다. 가문을 부흥시킨 전처만은 "장사꾼 노릇에도 귀한 사람 노릇"[28]이 있다고 믿으며 세 아들에게 각기 다른 자질을 물려주려 했고, 첫째에게 "씩씩하고 늠름한 마음기운"[29]을 보전하려 하지만, 이 기획은 후대에 이르러 좌절된 것으로 드러난다. 이성은 전처만이 덕성을 물려주는 데 실패한 사례로 제시된다. 자식 대에서 그치지도 않아, 승재조차 종상을 체포하려던 평생의 기획이 성공한 뒤에야 자신의 행동이 "일생일대의 헛수고"[30]였음을 깨닫는다. 이처럼 실패는 서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 실패들을 결핍의 표지가 아니라, 규범적·직선적 시간성에서 벗어나 이질적 시간성이 직조되는 계기로 파악한다.

전처만은 셋째 이성에게는 농사꾼의 기질을, 둘째 부성에게는 상인의 자질을 물려주고 싶어 했고, 첫째에게는 '마음기운'을 물려주려 했다. 그러나 양반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그 마음기운은 첫째의 이른 죽음으로 이미 단절되었으며, 이는 "자신 속에 공존하는 것들이 자식들한테는 나뉘어져 나타난"[31] 낭패감을 더 절절하게 만든 계기로 서술된다. 전처만은 태임에게조차 과거 자신이 양반에게 겪은 수모나 그로 인해 발생한 마음기운에 관한 전말을 털어놓지 않는다.[32] 그러나 소설은 전처만의 의도가 어긋났다고 서술한다. 상인의 자질이 뛰어난 이성을 농사로, 농사꾼의 천성을 지닌 부성을 상업으로 억누르려던 그의 배치는 그대로 빗나가, 이성과 부성은 끝내 전처만의 뜻과 어긋난 자리에서 제 천성을 따른다. 전처만이 자질을 물려주려던 계획은 이렇듯 아들마다 빠짐없이 실패하지만, 계

28 1권, 77쪽.

29 1권, 81쪽.

30 3권, 342쪽.

31 1권, 82쪽.

32 전처만의 내면에는 "언젠가 이 아이한테만은 말할 수 있으리라."는 "혈육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미련"과 "계집애 따위한테 들려줄 만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권, 44쪽.)

승되지 않는 듯 보이던 자질들은 유실된 것처럼 가라앉았다가 엉뚱한 자리에서 다시 솟는다. 이렇게 엉뚱한 자리에서 되솟는 것들 가운데, 본 연구는 특히 태임·혜정·여란과 같은 여성인물들이 겪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실패들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여성들이 겪는 실패의 계보는, 태임의 어머니이자 모녀 3대의 기원에 놓인 머릿방 아씨에서 시작된다. 머릿방 아씨는 태남을 낳은 직후 시어머니 홍씨의 계략으로 돈궤를 옮기다 자궁을 잃는다. 이는 가부장적 재생산 규범을 어긴 여성에게 수치를 안기는 처벌로 의미화된다. 머릿방 아씨는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지는 것으로 그 처벌에 대해 저항하며 삶을 끝마친다. 이때 그가 겪은 치욕은 '염불이 빠지'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안숙원은 남성들이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여성 경험에 대한 무지의 기록으로 이해한 바 있다.[33] 주의할 점은 남성들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면서도 머릿방 아씨에 대한 소문을 재생산하고 상기시키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종상이 돈궤의 돈을 두고 "소문대로냐" 물었을 때, 태임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답을 내놓는다. 태남의 울뚝증을 제어하기 위한 태임의 갑작스러운 결단 역시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머릿방 아씨에 관한 소문은 소문으로서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매개로 비스듬하게 재생산되고 있다. 이 소문은 태임이 물려받은 돈궤를 쪼개어 "요요하고 음산한 소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야 비로소 멎는다. 소문을 옮기는 종상과 태남이 정작 소문의 내막을 모른다는 모순은, 소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 두 사람에게 "사내답지 못하게 오싹 소름이"[34] 끼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미망』은 이를 통해 쉽게 장악되지 않는 이 소문이 인지와 통제를 넘어선 힘으로서, 이해되지 않은 채 기억에 자리 잡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해하지는 못한 채 이루어지는 계승은 여러 대목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태남은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어 스스로를 손씨로 여기기를 택한다. 자기 설명의 실패는 곧 자신의 계보를 찾을 수 없음을 뜻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중심적

33 안숙원,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서사시학 (2)」, 앞의 논문, 355쪽. 안숙원은 이를 뤼스 이리가라이가 제안한 여성 언어의 창출로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남성들의 무지가 그 소문을 재생산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34 2권, 466쪽.

호적과 가족 관계 안에서만 그러하다. 태남의 존재는 머릿방 아씨의 일탈과 재득의 실재를 증언하는 동시에, 가부장적 시간관을 이탈하는 존재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스스로도 까닭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성을 '손'으로 정함으로써, 태남은 민족 재생산의 공간이자 보수적 고장인 개성을 벗어나 대안적 삶의 공간인 만주에 안착한다.

여란은 어른들이 상철과 맺어 주려던 주선이 어긋난 뒤, 규서의 성폭력에 저항하다 만주로 옮겨 가지만 그곳에서도 정착에 실패하며, 끝내 일본으로 건너가 상철과 만난다. 그곳에서 첩의 자리에 들었다가 아들을 낳고 정실 자리를 차지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호적까지 빼앗았다'는 비난을 듣는다. 호적에 오른 첩이라는 모순된 서술이 보여주듯, 여란은 기록상 상철의 정실부인이다. 호적이 남성중심적 재생산의 증거이자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기록의 산물임을 고려하면, 여란은 그 역사와 제도 안에 자신의 자리를 할당받은 셈이다. 그러나 소설은 여란이 온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소문과 구전에서는 오히려 "호적에 올랐기 때문에 더욱 요망한 첩"[35]이 되어버렸다고 서술한다. 종상의 옥바라지를 위해 경성에 온 태임이 여란과 상철의 '란꼬'라는 호칭에 분노하자 여란이 "허깨비가 제 근본"[36]이라 응수하는 이유는, 기록되지 않은 과거가 기록상으로는 허깨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란은 기록상의 자리를 얻고도 그 자리에 안착하지 못한다. 주선의 어긋남에서 만주·일본으로의 이주, 정실이 되고도 '요망한 첩'으로 떠도는 처지에 이르기까지, 여란은 직선적 자리잡기에 번번이 실패한 끝에 어디에도 고정되지 못한 채 옮겨 다니고, 자신이 위치한 자리마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

혜정은 승재의 양아들인 규서와 혼인한 상태로 처음 등장하지만, 이는 "진짜 못할 노릇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의 아내 노릇, 경멸하는 집안의 며느리 노릇"[37]으로 회고된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혜정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며, 규서는 혜정에게 부부강간을 일삼는다. 또한 승재와 규서는 여란에게 흑심을 내비친다. 규

35 3권, 301쪽.
36 3권, 358쪽.
37 3권, 294쪽.

서는 여란을 성폭행하고자 시도하지만, 규서의 시도는 실패하고 여란은 저항 끝에 규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규서가 곧 죽으리라 예상한 혜정은 여란이 자신을 대신해 규서를 처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여란을 대신해 누명을 쓰기로 한다. 즉 여란에게 흑심을 품은 규서를 시기한 나머지 자신이 그를 찔렀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혜정의 예상과 달리 규서는 곧 상처를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고, 여란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혜정과 함께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승재에게 자백한다. 이로 인해 혜정은 여란과 함께 승재의 집을 떠나게 된다. 이 사건은 모든 인물들의 의도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다. 여란을 성폭행하려던 규서의 시도는 실패하며, 승재를 속이려던 여란과 혜정의 거짓말은 규서가 회복함에 따라 거짓임이 승재에게 탄로 난다. 승재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는 척하고자 시도했으나, 규서가 살아난 줄도 모른 채 진행된 여란의 자백으로 인해 이조차 실패로 귀결된다. 누구의 의도조차 관철되지 못한 이 독특한 사건은 여란과 혜정이 함께 만주로 떠나 태남의 집에 정착하게 만드는 계기인 동시에, 이 소식을 들은 승재가 태임과 종상 일가를 곤란에 빠뜨리고자 기획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실패는 도리어 혜정을 만주로 옮겨 가게 하고, 끝내 태남과 함께 개성에 정착시키는 동력이 된다. 혜정의 실패는 닫힌 결말이 아니라, 예정되지 않은 자리로 삶을 옮겨 가게 이끄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 실패들이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다른 삶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다. 여란은 태남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이는 실망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여란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고, 개성에서 만났지만 맺어지지 못했던 상철과 혼인을 하게 된다. 만주에 적응하지 못한 여란과 달리 혜정은 만주에 잘 적응하여 아픈 달래가 원래 하던 역할을 대신 맡아 태남의 가족들을 돌보게 된다. 달래가 죽은 후, 혜정은 태남과 부부가 되어 소설의 마지막 부분까지 태남과 함께 살게 된다. 태임과 종상을 곤란에 빠뜨리려던 승재의 기획은 밀정 마도섭의 활약으로 태남과 종상을 체포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종상의 체포를 계기로 승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일생일대의 헛수고였음을 깨닫게 된다.

태임의 좌절 또한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태임은 어머니 머릿방 아씨가 어른들의 뜻에 자신의 처지를 맡긴 사실에 분노를 표하며 한편으로는 머릿방 아씨를 동정하기도 한다. 어머니와 다른 삶에 대한 욕망은 서구식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어지지만, 전처만의 죽음에 이어 종상과 혼례를 치르는 것을 끝으로 단념하게 된다.

그런데 전처만이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기운은, 머릿방 아씨가 태남이를 낳던 곳으로 태남이를 끌고 가는 태임에게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힘"[38]으로 되살아난다. 태임은 물려받은 적이 없고, 전처만 스스로 첫째의 죽음으로 끊겼다고 여긴 그 마음기운이, 태임의 인지 바깥에서 되살아나 작동하는 것이다. 양반에 대한 전처만의 원한에 뿌리를 둔 이 힘은, 누구의 가르침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솟구친다. 이는 계승이 부계의 직선을 따라 또렷이 이어지는 대신, 출처 모를 자리에서 우발적·일시적으로 돌아오는 방식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모녀 3대의 계승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가부장제에 복종한 머릿방 아씨, 어머니를 혐오하며 신여성을 지향했으나 교육에 실패한 태임, 교육은 받았으되 본처에게 욕먹고 조강지처도 되지 못한 여란으로,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계승은 세대마다 어긋난다. 정작 태임에게 전해진 것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 홍씨의 신묘한 살림 능력이다.[39] 모계의 직선이 끊긴 자리에서 계승은 한 세대를 비껴 비스듬히 이어진다. 여기서 비스듬한 계승을 가르는 표지는 한 세대를 건너뛰는 경로 자체가 아니다. 조손 간의 기질 전승은 가

38 2권, 209쪽.

39 다만 이 계승이 단순한 회복으로 읽히지 않는 까닭은, 홍씨가 살림을 도맡았다는 사실이 머릿방 아씨를 처벌하는 가부장적 권력의 매체였기 때문이다. 머릿방 아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돈궤 사건은 홍씨가 가부장제 내에서 가진 권력을 기반으로 벌어졌다. 따라서 태임에게 비껴 이어지는 살림 능력은 양가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 능력은 사람과 집안을 가꾸는 힘인 동시에, 며느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동해랑의 신묘한 우물까지 막아버렸다는 점에서 개인을 넘어 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이처럼 비스듬한 계승은 '순수한' 여성적 유산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권력과 뒤얽힌 역량과 함께 전수되기도 한다. 핼버스탬이 그림자 페미니즘에서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를 구원하거나 자신을 복제하는 순결한 모계 계보다. 홍씨에게서 태임으로 비껴 이어지는 역량의 양가성은 그러한 '순결한' 유산이라는 환상을 깬다. 4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태임이 자신의 살림 능력을 승재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 활용하는 대목은, 유산이 지닌 위험성이 태임에게서는 자신을 지키는 힘으로 전환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망』은 이 계승을 여성 연대의 회복으로 미화하는 대신, 권력과 뒤얽힌 채로 이루어지는 계승으로서 제시한다.

족서사의 관습적 모티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40] 주목해야 할 것은 전달의 양태다. 홍씨의 살림 능력은 누구의 의도나 교육으로도 전해지지 않았고, 태임 자신의 인지 바깥에서 가부장적 권력과 뒤얽힌 양가적 역량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선형적 전승과 구별된다.

이러한 비스듬한 계승은 핼버스탬이 4장 그림자 페미니즘에서 퀴어·탈식민·흑인 페미니즘을 두루 검토한 끝에, "다른 이들을 구원하거나 스스로를 복제하는 데 실패하고, 스스로의 실패에서 의미를 찾는"[41] 페미니즘에 주목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핼버스탬이 '통달에 저항하기'를 의제로 내세우며 거부하는 것은, 어머니의 소망을 딸을 통해 곧게 완성하려는 직선적 계승, 곧 다음 세대를 자기의 복제로 장악하려는 재생산의 논리다. 핼버스탬에 따르면 "어머니에서 딸로 지식을 '전수'하는 모델 자체는 매우 명백히 백인의, 젠더화된 이성애적 규범성"[42]으로서 의도치 않게 가부장제와 닮아 있으며, 그는 스피박과 사바 마무드의 논의가 이미 "행위주체성이 취해야 하는 형태를 이미 상정하고 있는 페미니즘 이론의 한계"[43]를 폭로한 바 있음을 지적한다. 머릿방 아씨에서 태임으로, 태임에서 여란으로 이어지는 모녀 3대는 바로 그 직선적 완성에 거듭 실패함으로써 재생산의 회로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미망』은 이 실패를 순수한 단절로 제시하지 않는다. 직선적 연결이 끊긴 자리에서 전처만의 마음기운과 홍씨의 살림 능력은 누구의 의도로도 장악되지 않은 채,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힘'으로 한 세대를 비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직선적 계승의 '실패'가 도리어 비스듬한 계승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핼버스탬의 그림자 페미니즘이 통달의 거부에서 멈춘다면, 『미망』은 그 거부를 발판으로 삼아, 장악되지 않기에 오히려 끊기지 않는 다른 계승의 가능성

40 앞서 김복순은 전처만이 보존하고자 했던 기질이 아들 대에서 폐기되고 손녀 태임에게서 되살아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김복순이 이를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한 지속의 관점, 즉 단절되지 않는 계승으로 읽었다면, 본 연구는 누구에게도 장악되지 않은 채 단절과 실패까지도 내포한 비스듬한 계승으로 읽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김복순, 2006, 앞의 논문, 268쪽.

41 잭 핼버스탬, 앞의 책, 260쪽.

42 위의 책, 252쪽.

43 위의 책, 257쪽.

을 연다.

다만 이러한 독법이 핼버스탬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 핼버스탬의 망각은 기억과 전통, 유용한 과거에 속박되지 않은 새로운 출발을 지향하는 반면, 본 연구는 단절된 자리에서 발생하는 다른 이어짐 혹은 되살아남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곧 본 연구의 비스듬한 계승은 핼버스탬이 제시한 직선적 전수 모델의 거부를 발판으로 삼되, 전수냐 그 거부냐라는 틀 자체가 해체되는 변칙적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미망』에서 이어지는 것은 성취나 기획의 산물도, 그에 대한 거부의 결과도 아니라 우연히 이어진, 누구의 소유도 아닌 역량이다. 이러한 우발적 계승은 전승 혹은 거부라는 틀로 환원되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의 척도 자체가 무력화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달은, 성공 서사로 회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살핀 실패들은 한 인물의 불운으로 그치지 않는다. 전처만이 아들마다 자질을 가려 물려주려던 기획과 태임이 품은 서구식 교육의 꿈처럼, 직선으로 곧게 전하거나 이루려던 것은 번번이 빗나가고 단념된다. 이런 식으로 『미망』은 직선적 계승의 서사에서 이탈한다. 다른 한편 머릿방 아씨의 치욕과 여란·혜정의 어긋난 기획처럼, '적절한' 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진 것들은 소문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는 몸으로 떠돈다. 그러나 소설은 이러한 단절이나 좌절을 다른 삶을 향한 가능성을 여는 기제로 전환시킨다. 전처만이 끊겼다 여긴 마음기운은 태임에게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되살아나고, 어머니의 삶을 계승하길 거부한 태임에게 오히려 할머니 홍씨의 살림 능력과 이에 대한 자부심이 계승되며, 머릿방 아씨의 소문은 그것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매개로 오히려 더 끈질기게 이어진다. 이처럼 『미망』에서 잊어선 안 될 것들은 직선적 계승으로 보존되는 대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껴 솟아나고, 장악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남으로써 망각과 독특한 관계를 맺는다. 『미망』에서 실패나 좌절을 결핍의 표지가 아닌, 다른 시간성을 여는 역량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4 비스듬한 계승, 체현된 앎과 일상에 가라앉은 힘들

앞서 살핀 계승의 사례들은 생애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미망』은 그 현장을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면모들과 연결 지어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장면에 걸쳐 나타나는 개성의 음식, 머리어멈의 기술에 대한 서술, 집안일에 대한 서술 등은 일상의 면모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부 사실의 묘사는 오랫동안 '쇄말적 묘사'라는 박완서의 작가론적 특성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는 『미망』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소설 전반에서 거듭 지적되어 온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이 묘사들을 작가의 기질로 환원하는 대신, (탈)역사적 의미를 갖춘 텍스트의 작동으로 읽고자 한다. 2장에서 보았듯 핼버스탬에게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저급한' 것들은 실패를 활용해 대안적 삶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관점에서 『미망』의 쇄말적 묘사는, 거대 역사로 수렴되지 않고 일상 속에 가라앉아 반복되고 이어지는 힘과 체현된 앎의 기록으로 다시 읽힌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망』에서 반복되는 일상들이 유실되거나 단절되지 않는 계승을 만들어낸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이 갖는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망』에서 잊히지 않는 것들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서술의 반복을 통해 되살아난다. 도깨비가 땅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믿음, 태임이 부르는 노랫말, 야다리에서 주워 왔다는 놀림 같은 모티프들은 작품 곳곳에서 출몰하다가 종장에서 다시 한번 회귀한다. 이 반복의 구조는 『미망』의 시간이 직선적 발전이 아니라 회귀와 되풀이로 짜여 있음을 보여주는 형식적 증거인 동시에, 잊히지 않는 것들이 발현하는 시공간으로서 일상을 부각한다.[44] 이러한 회귀는 소설 속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 살림에 대한 쇄말적 묘사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종상은 다리를 다친 시절 신세를 지고 있던 '서울 깍쟁이' 집안을 향해 "오이소박이 수효나 세고 앉아 살림 잘허는 줄"[45] 안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살림 능력을 평가절하한다. 유사하게 소설은 승재의 집을 묘사할 때에도 여란의 시선을 빌려 승재의 부인을 집안일에 무능한 인물로 그린다. 이는 '아랫것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승재의 집안일을 돕는 고용인들 역시 시장

44 앞서 김복순은 이러한 시간관을 순환적 시간관으로 해석한 바 있다.(김복순, 2006, 앞의 논문, 269쪽.) 본 연구는 순환적 시간관이 순환의 경로를 반복하며 주기적으로 완결되는 대신, 예정된 경로 없이 우발적으로 되살아나는 재활성화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45 1권, 304쪽.

에서 푼돈이나 절약하는 것을 공로처럼 늘어놓는 것으로 제시된다.[46]

이와 달리 혜정은 만주에서 궂은일을 계속 도맡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마도섭의 질문에 대해 승재의 집을 떠올리며 앞서 인용한 며느리 노릇을 술회한다. 이 대목에서 혜정은 만주의 태남 집에 얹혀 지내며 생활을 돕고 있으며, 혜정이 온 이후 태남 일가의 살림이 훨씬 나아진 것으로 묘사된다. 이를 통해 혜정은 계급이나 빈부를 따지지 않고 사람과 집안을 가꾸어나가는 행위로서 가사노동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가사노동이 이처럼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미망』이 가사노동의 수준을 지적하며 가정이나 인물을 향해 비판적 시선을 보낸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사의 중심에 놓인 태임에게서도 집안일 능력은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태임의 할머니인 홍씨가 지녔던 신묘한 집안일 능력이 이어진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특히 태임의 부엌일 기술은 똑같은 음식도 태임이 직접 접시에 담으면 전혀 다른 음식이 되는 것처럼 서술된다. 이는 특히 갑작스럽게 방문한 승재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 태임이 직접 음식을 담는 대목에서 두드러진다. 승재를 경계하는 태임은 준비되지 않은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으로 직접 담아낸다. 이때 태임의 신묘한 집안일 능력은 단순한 가사노동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 자부심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할머니 홍씨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설음식을 장만하던 것과 겹쳐진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살림에 대한 쇄말적 묘사들은 단순히 가사노동과 연루된 여성의 삶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가문의 위엄이나, 가족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재한 것으로서 제시된다. 전처만 가문의 명절 손님 대접과 대비되는 '서울 깍쟁이'들의 살림살이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닌 인심에 관한 문제로 의미화된다. 특히 승재가 경성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성과 서울 깍쟁이들의 대비가 집안일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망』에 나타난 살림에 대한 쇄말적 묘사는 여성들의 노동과 자부심을 제시

46 서울과 개성의 대비를 작가론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룬 연구로는 손가인, 앞의 논문을 참고. 여기서는 손가인이 주목한 상인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살림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하는 역할에 더해, 경성-자본제-승재와 대비를 이루며 개성-상혼-태임의 구도로 대항적 자부심으로 형상화된다. 이와 같은 살림 솜씨는 후술할 흙기운의 사례와 유사하게 통달할 수 없는 앎인 만큼, 태임에게서 여란에게로 유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승재의 집에 있을 때는 강조되지 않던 혜정의 솜씨가 태남의 집에선 강조되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항적 자부심은 살림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설은 개성 민중이 일상적으로 지닌 기질에서도 같은 힘을 읽어내는데, 이는 이 힘을 고평가하는 종상의 내면을 빌려 제시된다. 상가의 땅을 일본인에게는 팔지 않는 개성 상인들의 배타성, 값이 더 싸도 일본인 상점은 끝내 거부하는 과부의 사례 등은 종상의 시선을 통해 제시된다. 이 사례들은 종상이 승재를 상대로 증명하고자 한 농공상의 힘이면서, 동시에 종상이 황도중을 비롯한 개성의 유지들을 대표해 민족주의적인 금융조합의 발기문을 쓰는 일이 무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종상은 민족 이념에 입각해 자본주의적인 은행 설립을 시도할 때는 개성의 전근대적 상혼과 상업 제도에 가로막히고, 유지들과 함께 반식민적 금융조합을 시도할 때는 민중의 힘을 느끼고 자진해서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 소설이 개성 지역이 유일하게 전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한 지역이라는 자부심에 더해, 거대한 민족주의적 기획에 선행하는 상혼과 민중적 힘의 초과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때 개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보수적 기질'이나 '배타성'은 민족주의 운동의 일부로 직접 포섭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식민지 해방의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개성에 숨어 있는 민중의 힘은 기획을 초과하는 저항으로 가라앉아 이어진다.[47] 선행연구

47 이러한 저항적 행위성들이 때로는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종상이 일인 도채꾼의 신발을 빼앗은 것은, 어디까지나 삼포를 지키려는 행위였을 뿐 태임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종상은 일인 도채꾼의 신발을 빼앗고 관가에 고발하는 일까지는 성공하지만, 결과는 관가에 의해 곤장을 맞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일인을 처벌하는 데에는 실패한 종상의 시도는, 태임과 본격적인 교류로 이어져 태임과 혼인하는 것으로 삶 전체를 정향시킨다. 종상과 친구들의 민란 모의가 실패하고 전유된 일 또한, 종상이 태임으로부터 경성 진학을 인정받고 끝내 둘의 혼인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처럼 소설은 민중의 저항적 행위가 실패하거나 왜곡되는 과정을 제시하면서도,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만 한정하는 대신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내

들이 개성의 '상혼'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상기한 사례들은 상혼 외에도 개성의 지역성이 갖는 의미를 소설을 통해 승화시킨 사례라 하겠다.

일상에 가라앉아 이어지는 힘은 살림과 민중의 기질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소설의 종반부에서 경우와 경국은 분단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개성으로 밀항을 감행한다. 이 대목에서 경국은 재득과 태남의 농사꾼 기질을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때 경국이 밀항까지 시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자리 잡은 강화도의 흙기운이 개성의 흙기운과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경국이 개성으로 이주한 기간이 개성에서 나고 자란 경우에 비해 훨씬 짧다는 점이다. 경국은 달래와 태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달래는 경국을 임신한 시점에 개성을 방문하지만 만주로 복귀한 후 경국을 출산한다. 이후 경국은 태남의 "가겟방 책상에 단정히 앉아서 공부를"[48] 하다가 만주에 도착한 마도섭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다시 등장한다. 경국이 개성으로 옮겨온 시점은 "종상이의 사후 혜정이가 시골에서 살기를 원해 농토가 있는 샛골로 이주"[49]한 시점이다.[50] 즉 경국은 경우에 비해 짧은 기간 개성에 머물렀지만 경우조차 알지 못하는 흙기운을 파악하고, 개성에 머무른 시간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 강화도에 머물렀음에도 그 흙기운을 개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득의 삼농 기질은 태남을 거쳐 경국에게도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경국이 흙기운을 알아본 데서 드러나듯, 재득에게

는 사건으로 배치한다. 한편 김재건은 이러한 의도 바깥의 상황들을 '우연'에 의한 가족 구성으로 태임의 관점에서 가족 재구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김재건, 앞의 논문, 389-395쪽.) 본 연구에서는 태임의 관점을 벗어나, 이 우연들이 각 인물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며 '가족'의 범주를 비롯해 다른 삶들을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48 3권, 287쪽.

49 3권, 348쪽.

50 혜정이 개성으로 옮겨온 시점은 종상이 죽은 직후로, 소설에서는 태임이 태남의 옥살이를 돕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를 위해 여란의 집에 머무르던 태임은 여란과 다투게 되는데 이로부터 3년 이내에 창씨개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 따라 실제 연도를 추산하여 보면, 경국이 혜정과 함께 개성으로 이주한 것은 1930년대 후반의 일이다. 6·25 전쟁 기간까지 개성에 머무르는 경국은 15년가량을 개성에서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서 태남을 거쳐 경국에게로 이어진 것은 삼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길러내는 앎이다. 어느 땅에 삼을 심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몸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체현된 앎은, 완성된 삼과 달리 도채당하지 않는다. 일본인 도채꾼은 완성된 결과물을 빼앗을 수 있을 뿐, 그것을 가능케 한 앎까지 빼앗지는 못한다. 이 앎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앞서 언급한 살림 솜씨와 마찬가지로 도채의 대상으로 포착되지도 공식 기록에 기입되지도 않는다. 재득에게서 이어진 이 앎은 유전적 자질에 해당하지만, 정해진 때에 필연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채 잠재해 있다가 어떤 우연한 마주침에서야 비로소 깨어난다. 실제로 경국의 앎은 그가 6·25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강화도에 흘러든 뒤, 그 땅이 개성의 흙기운과 같음을 알아보는 순간에야 활성화된다. 누구도 그 발현의 시공간을 장악하거나 예정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앎은 통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채되지 않고 비스듬히 이어진다. 그렇기에 같은 도둑질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음에서 보듯 완성된 삼과 묘삼은 그 위상이 갈린다.

결국 경우와 경국은 개성으로 향하지만, 태남에 의해 묘삼을 반출하는 것이 저지당한다. 이에 혜정은 "훔쳐 가"[51]라고 제안하고, 경우와 경국은 태남의 묘삼을 훔쳐 달아난다. 이 도둑질은 소설의 초반부에 제시되어 결과적으로 종상과 태임을 맺어주는 일본인들의 삼 도둑질과 대비를 이룬다. 일본인들의 삼 도둑질이 이성을 비롯한 지주들의 부분적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경우와 경국의 도둑질 역시 혜정으로부터 부분적 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훔치는 삼이 완성된 삼이라면, 경우와 경국이 훔치는 삼은 묘삼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상업적 가치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지만, 개성 삼의 뿌리를 뽑는 시도와 개성 삼의 뿌리를 강화도에 내리는 시도라는 점에서 방향성의 대비를 이룬다.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닌 삼은 가시화되어 거래되고 빼앗길 수 있지만 그 생장의 가능성은 닫혀 있다. 반면 상품으로서 미완성 상태인 묘삼은 아직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종자이자 가능성으로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이처럼 소설은 도둑질의 대상이 되는 두 삼의 대비를 통해 자본에 의해 상품화되고 완성되어버린 결과물과 전이되고 계승될 수 있는 미완성의 가능성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51 3권, 449쪽.

이 위상 차이는 곧 시간성의 차이이기도 하다. 완성된 삼은 더는 자랄 수 없이 결과로 닫힌 시간, 진보와 적통으로 표상되는 직선적 시간을 표상한다. 이와 달리 묘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다른 땅에서 새로 시작될 수 있는 열린 시간, 즉 직선적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고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삶들을 표상한다. 따라서 소설이 일인들의 도채를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달리, 경국과 경우의 묘삼 도둑질을 우호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식민과 가족이라는 다른 입장 때문만은 아니다. 이 대비는 이 소설이 직선의 시간 끝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대신해, 옮겨가고 전이되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이 소설은 근대 자본제의 시간성을 삼의 상품성과 연결 짓고, 이와 이질적인 시간성으로서 묘삼과 삼농의 생명력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비는 단순히 묘삼을 완성된 삼보다 우월한 것으로 세우고 위계를 재배치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성의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직선적 시간관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이 장에서는 계보의 직선을 비껴 흩어진 힘들과 체현된 앎들이 어디에 가라앉아 이어지는가를 탐구해보았다. 살림에 대한 쇄말적 묘사는 작가론적 특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여성들의 노동과 자부심을 넘어 경성-자본제에 맞선 개성-상혼의 대항적 자부심으로 형상화된다. 상혼과 민중적 힘은 각각 종상의 자본주의적 기획과 거대한 민족운동에 선행하면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두 번에 걸친 종상의 포기는 넓은 의미에서 좌절에 해당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제시된다. 재득에게서 이어진 흙기운에 대한 앎은 누구도 그 시공간을 장악하지 못하는 우연한 발현으로 경국에 이르러서 되살아난다. 이 일상의 장면들을 가로지르는 것은, 완성되어 가시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통달할 수 없기에 도채되지 않는 체현된 앎이다. 살림 솜씨가 곧게 유전되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서 발휘되듯, 민중적 힘 또한 예정된 경로 없이 우발적으로 솟아 입소문을 타면서 확산되고 활성화된다. 흙기운에 대한 앎 역시 유전에 따라 예정대로 재생산되는 대신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재활성화된다. 잊어선 안 될 것들이 직선적으로 보존되고 박제되는 대신 일상에 가라앉았다가 비스듬히 솟아오른다. 소설은 이를 초반부 완성된 삼과 종반부 묘삼의 대비로 집약시킨다. 도채되어 거래되는 완성된 삼이 결과로 닫힌 직선의 시간이라면, 강화도에 새로 뿌리내릴 묘삼은 아

직 결정되지 않은 채 미래를 향해 열린 대안적 시간을 상징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망』 속 좌절된 소망들이 결핍의 표지가 아니라 다른 삶을 여는 역량으로 읽히는 까닭은, 그 소망들이 일상에 잠재해 통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삶과 시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5 여성역사소설 연구를 향하여

본 연구는 『미망』을 실패의 서사로 읽되, 그 실패를 결핍이 아니라 다른 시간성의 동력으로 파악하였다. 1장에서는 여성사 쓰기가 마주한 역설을 연구의 배경으로 삼아 '여성역사소설'을 쓰기 전략의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이 글이 규명할 서사 원리로서 '비스듬한 계승'을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재검토하여 이 소설이 개성의 로컬리티, 자본주의 비판, 여성적 특성이라는 세 경향에 따라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잭 핼버스탬의 실패와 저급이론을 바탕으로 이 글이 다루는 실패의 층위를 규정하였다. 3장에서는 좌절된 소망이 한 인물에게서 그치지 않고 계보를 비껴 솟아오르는 양상을 추적하였다. 4장에서는 그 비껴난 힘들과 체현된 앎들이 살림과 저항, 흙기운에 대한 쇄말적 묘사 속에서 일상에 가라앉아 이어짐을 살피고, 열린 시간을 상징하는 묘삼의 가능성을 읽었다. 가시화되지 못한 채 좌절된 소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본 연구는 『미망』이 직선적 계승을 이탈하는 다른 시간성과 대안적 삶을 생산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역사는 물론이고 역사를 배경으로 한 창작물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역사의 행위자가 아니라 남성 인물의 위기를 부각하는 서사적 장치로 배치되어 왔다.[52]

52 이러한 문제의식은 1990년대 여성문학 중 '386세대 여성 후일담 문학'이 민주화를 기념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이명호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명호,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형도 그리기—환멸과 각성의 교차로에서 길어 올린 여성주체, 여성적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6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309-336쪽을 참고. 오혜진은 「누가 민주주의를 노래하는가」에서 유사한 문제가 매체를 막론하고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민주화를 기념하려는 역사 영화들이 남성을 과대 표상하며, 현실 정치에서 남성들 위주로 민주화를 기념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오혜진, 「누가 민주주의

조앤 스콧은 여성사를 위시한 역사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가 기록이나 문헌의 한계인 동시에 여성주의 역사 쓰기 전반의 구조적 역설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앞서 살폈듯 평등과 차이 어느 쪽을 택하든, 여성사 쓰기는 남성을 보편으로 둔 역사 서술의 틀 자체에서 역설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역사가 기록하고 기념하는 권력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루카치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젠더의 층위로 전환시킨다면 남성을 필두로 한 지식생산의 산물인 역사 서술에 맞서, 여성의 역사소설 쓰기는 대항적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미망』은 역사에서 배제되고 누락된 여성과 소수자를 가시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서 차별로 인해 태임과 거리가 멀어진 후성이나 이부제의 태남을 전면에 세우는 선택은, 한편으로는 가시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망』은 이들이 무언가를 계승하는 장면을 전면화함으로써, 이들을 역사를 비스듬히 계승할 역량을 지닌 존재로 그려낸다. 이를 통해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화된 범주로 재현하는 대신, 과거를 계승할 역량이 발현되는 자리로 위치시킨다. 즉 『미망』은 배제된 소수자나 약자를 단순히 가시화하는 대신, 누구에게서든 발현될 수 있는 계승의 역량을 남성에게만 귀속시켜 온 역사 서술에 책임을 묻는다. 나아가 그러한 범주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필연으로 간주되던 남성중심적 역사 서술을 우연의 산물로 재범주화한다.

이처럼 『미망』은 차이와 평등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대신, 역사를 비스듬하게 계승할 역량 자체를 가시화함으로써 앞서 살핀 여성사 쓰기의 역설을 소설 쓰기의 전략으로서 전위시킨다. 이러한 전위가 여성역사소설 쓰기 일반의 수행을 가리킨다면, 비스듬한 계승은 그 수행이 『미망』에서 실현되는 하나의 서사 원리라 하겠다.

비스듬한 계승이 이 전위를 실현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행위 능력을 새로 부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성을 가늠하던 잣대 자체

를 노래하는가」,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 봄, 2019, 145-172쪽. 그 결과는, 역사소설을 분석하는 작업에 앞서 역사를 읽는 작업이 "역사에 대한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다독이는 일"이라 개탄하는 권명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책세상, 2009, 133쪽.

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미망』은 의도·장악·소유되는 행위 능력을 평등하게 여성에게 부여하는 대신, 이러한 계승이 번번이 실패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전처만의 구상도, 승재의 기획도, 종상의 두 차례 시도도 모두 의도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이와 대비되게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힘"[53]이나 체현된 앎은, 예정과 달리 강화도로 옮겨지는 묘삼처럼 누구도 장악하지 못하는 것들로서 끝내 이어진다. 따라서 이 소설이 가시화하는 것은 직선적 시간관에 입각한 역사적 행위 능력의 척도에 합격한 여성이 아니라, 그 척도 자체가 붕괴하는 자리에서 통달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다른 삶을 만들고 지속해가는 역량들이다.

이 역량들은 어느 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가부장 전처만의 마음기운은 손녀 태임에게서 솟고, 머릿방 아씨에 관한 소문은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매개 삼아 지속되며, 흙기운에 대한 앎은 재득에서 태남을 거쳐 경국에 이르기까지 6·25 전쟁을 거치며 발현한다. 이렇듯 비스듬한 계승은 젠더와 계급, 죽은 자와 산 자, 망각과 기억을 가로지른다.[54] 이때 인물들은 이 역량을 '소유'한 주체가 아니라, 발현되는 몸이자 매개로서 놓인다.[55] 차이와 평등 어느 쪽으로도 봉인되지 않는 이 역량을 가시화하는 방식은 『미망』이 여성사 쓰기가 마주한 역설을 전

53 2권, 209쪽.

54 비스듬한 계승은 젠더·인종·집단 학살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세대를 가로질러 전달된다는 논의와도 접속할 수 있다. 질 샐버그Jill Salberg와 수 그랜드Sue Grand는 세대초월적 트라우마에 비밀스러운 기억과 부재하는 역사가 깃드는 동시에, 그에 대한 회복탄력성 또한 함께 전달된다고 지적한다. Jill Salberg & Sue Grand, *Transgenerational Trauma: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2024. 특히 회복탄력성의 전달에 관해서는 pp.22-26을 참고. 비스듬한 계승이 비계획적·우발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이러한 트라우마의 전달과 닮았으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전달이 상실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삶을 이어갈 역량으로 마치 회복탄력성처럼 되살아난다는 점이다.

55 김복순은 여성역사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매개'(instrument)"로서 주체 형성을 유도하는 서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미망』의 태임을 그 한 사례로 제시하였다. (김복순, 2006, 앞의 논문, 258쪽.) 본 연구는 이 소설에서 태임의 역할을 주체 형성의 도구, 즉 매개instrument로 한정하지 않고, 전처만이 전해주고자 한 '마음기운'을 계승하는 매개체media로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역할은 태임에게 한정되지 않고, 과부의 사례에서처럼 소문을 발생시키는 존재에서부터 옮기는 남성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물들에게 다층적으로 부여된다.

위시켜 여성역사소설의 가능성을 여는 방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비스듬한 계승은 소설의 내용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물들의 비스듬한 계승이 역량의 사례라면, 박완서의 소설 쓰기 자체는 그 역량의 발현 사례라 할 수 있다. 「작가의 말」이 보여주듯 박완서는 분단으로 닿을 수 없게 된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으로서 비스듬하게 계승한다. 박완서가 직접 겪지 못한 과거를 소설로 불러내는 이 행위는, 앞서 살핀 재현과 재현 불가능함 사이의 긴장, 곧 권명아가 증언불가능성의 정동이라 부른 것과 맞닿아 있다.[56] 작가는 닿을 수 없는 과거를 온전히 증언하는 대신, 증언할 수 없음 자체를 소설 쓰기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잊혀 가지만 잊어선 안 될 것으로 상혼과 여성들의 일상을 제시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자원으로서 전근대의 상혼과, 직선적 역사가 누락한 여성들의 일상을 소설 쓰기로 계승함으로써,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겪지 못한 과거를 계승하는 행위자가 된다. 이때 작가가 과거로부터 길어 올리는 상혼은 전근대적·퇴행적 시간성의 산물로서 근대의 직선적 시간관에서 어긋나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자본제를 비판하고 넘어설 자원으로서 긍정된다. '잊어선 안 될' 것으로 제시된 여성들의 일상은, 역사소설 쓰기를 통해서 직선적 역사가 망각과 배제 위에 세워졌음을 폭로하는 자원이 된다. 남성적·가부장적 역사를 상대로 한 이러한 계승은 한 작가의 향수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이 역사소설을 쓴다는 행위는 작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계승하는 역량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계승의 구도를 직선으로 한정하던 전제를 벗어난 이러한 소설 쓰기는, 여성역사소설이라는 양식 일반이 직선적 역사를 비껴 계승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필연적이라 간주되던 역사 서술을 우연화하는 문학적 대안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에서 이 글은 역사 서술의 권력에 맞서는 대안적 실천을 여성역사소설 쓰기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역사소설 쓰기가 취하는 전략의 사례로서 『미망』을 잭 핼버스탬의 논의와 연결 지어, 이 소설 속 비

56 권명아, 2017, 앞의 논문을 참고. 『미망』에서 개성이 물리적으로 증언이 불가능한 공간이라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서 5·18의 광주 또한 유사한 위치에서 해석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선 김미정,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 『인문학연구』 제54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249-278쪽을 참고.

스듬한 계승이 곧 누구도 장악하지 못하는 힘의 작동 그 자체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허상으로 마무리되는 『미망』이, 텍스트 스스로 허구임을 전제하는 소설로서 역사 서술의 보편을 문제 삼는 대항적 글쓰기의 결과물임을 밝혔다.

이상의 결론은 여성역사소설이 갖는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지만, 분석의 대상이 『미망』으로 한정되어 있는 탓에 이러한 가능성이 여타의 여성역사소설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잠정적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여성의 역사소설 쓰기 실천들의 목록과 그 범주의 경계를 규명하는 일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예컨대 이 소설과 함께 논의되어 온 『토지』와 『혼불』, 역사소설이자 여성 작가가 쓴 최초의 장편소설로 꼽히는 박화성의 『백화』, 대중적 작가로 간주되어 온 강신재의 『명성황후』, 비교적 최근의 작가들인 한강, 김숨, 박솔뫼, 박서련, 한정현의 역사소설들, 대체역사소설과 SF, 웹소설 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나아가 여성의 역사소설 쓰기가 한국문학이라는 한정된 장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접근이 어느 범주까지 가능할지 보다 넓은 층위에서 연결될 필요가 있다.[57]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완서, 『미망』(전3권), 민음사, 2024.

단행본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책세상, 2009, 133쪽.

57 본 연구는 핼버스탬이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에서 전개한 실패 논의를 『미망』의 역사소설 쓰기 전략에 한정해 활용하였다. 다만 그의 논의는 글쓰기를 비롯한 지식·예술 생산 전반으로도 확장될 여지가 있다. 한 편의 작품이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쌓이는 수많은 습작과 초고는, 완성본의 자리에서 밀려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들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김병길, 『역사소설, 자미(滋味)에 빠지다』, 삼인, 2011, 142-158쪽.
오혜진, 「누가 민주주의를 노래하는가」,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 봄, 2019, 145-172쪽.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거름, 1987, 428쪽.
잭 핼버스탬, 허원 역,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 현실문화, 2024, 1-416쪽.
조앤 W. 스콧, 정지영 외 역, 『젠더와 역사의 정치』, 후마니타스, 2023, 23-40쪽.
Jill Salberg & Sue Grand, *Transgenerational Trauma: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2024, pp. 22-26.

논문 및 학술지

권명아, 「전쟁 상태적 신체와 슬픔의 공동체: 냉전 체제의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담론과 정념 공동체의 위상」, 『석당논총』 제56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 1-35쪽.
_____,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대안기념 정치 구상: 애도 주체와 현실의 증강, 그리고 '완서학'의 원천」,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83-208쪽.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공간의 건축술: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開城)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59-299쪽.
김경수, 「한국 여성역사소설의 구조와 상상력-『토지』와 『미망』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 141-170쪽.
김미정,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 『인문학연구』 제54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249-278쪽.
김버들·조정식, 「소설 『미망』 속 개성 한옥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22, 41-52쪽.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 인식과 '기억의 정치학'-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32-68쪽.

_____,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3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41-280쪽.
김영미, 「박완서 문학과 '개성(開城)'의 로컬리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7집, 한국현대문학회, 2022, 359-393쪽.
김재건, 「근대사회로의 역사적 이행과 개성 가족사(史)-대하소설 『미망』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제29호, 춘원연구학회, 2024, 363-400쪽.
김정화, 「젠더사의 정치학: 딜레마와 가능성—조앤 스콧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제34집, 효원사학회, 2008, 1-36쪽.
손가인, 「'싸늘한 방관자', 개성(開城) 사람으로 서울에서 문학 하기-박완서 대하소설 『미망(未忘)』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75집, 한국현대문학회, 2025, 355-383쪽.
안숙원,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서사시학 (2)-미망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337-370쪽.
_____,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트랜스크리티시즘-〈미망〉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제140호, 국어국문학회, 2005, 469-504쪽.
오세은, 「여성 가족사 소설의 '의례와 연대성'-〈토지〉, 〈미망〉, 〈혼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266-292쪽.
옥순종, 「박완서의 소설 「미망(未忘)」에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 『인삼문화』 제4권 제1호, 고려인삼학회, 2022, 38-58쪽.
유인혁, 「박완서의 경성: 『미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나타난 탈식민적 해방성」, 『한국문학연구』 제7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5, 347-376쪽.
이명호,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형도 그리기—환멸과 각성의 교차로에서 길어올린 여성 주체, 여성적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6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309-336쪽.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9-58쪽.
조영일,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근대문학 속의 역사소설」, 『문화/과학』 제63호, 문화과학사, 2010, 205-221쪽.

허정인,「박완서의『미망』에 나타난 근대 재고의 한 형식」,『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7권 제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315-334쪽.

Abstract

Women's Strategies for Writing Historical Fiction
: Failure and Sideways Inheritance within Park Wan-suh's Mimang

Pak, Joon-hoon(Dong-A Univ.)

This study rereads Park Wan-suh's Mimang as a case of women's strategies for writing historical fiction. As Joan Scott argued, rendering women visible as an "equal" part of history leaves male universality beyond critique, while positing women as a category of "difference" reduces women's history to an appendix. If historiography must present this paradox, women's writing of historical fiction can turn it into a strategic resource.

The failures examined here are measured against the designs the characters set for themselves. Drawing on Jack Halberstam, this study reads such frustration not as lack but as a question of what remains and what continues. Jeon Cheo-man's mae-um-giun, Hong's art of running a household, and Jae-deuk's knowledge of the soil are not transmitted according to intention; they revive contingently, skipping a generation, where transmission failed. This "sideways inheritance" cuts across gender and class, the dead and the living, forgetting and memory.

Park's own novel-writing, summoning into fiction a hometown unreachable by division, is itself a practice of such inheritance. The study positions Mimang as a starting point for the study of women's historical fiction.

Key words: Park Wan-suh, Mimang, women's historical fiction, failure, sideways inheritance, shadow feminism

논문제출 / 2026.07.14.
심사완료 / 2026.08.08.
게재확정 / 2026.08.08.